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10

## 미 증시, 완화적 연준 위원 발언에 상승

김석환 seokhwan.kim@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달러인덱스 하락

•미 증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무력 충돌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하락 출발. 그러나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로리 로건 달러스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상승 전환. 한편 국제유가는 4% 넘게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10% 넘게 급등. 달러인덱스 장 초반 강세 출발하였으나 하락 반전. (다우 +0.59%, 나스닥 +0.39%, S&P500 +0.63%, 러셀2000 +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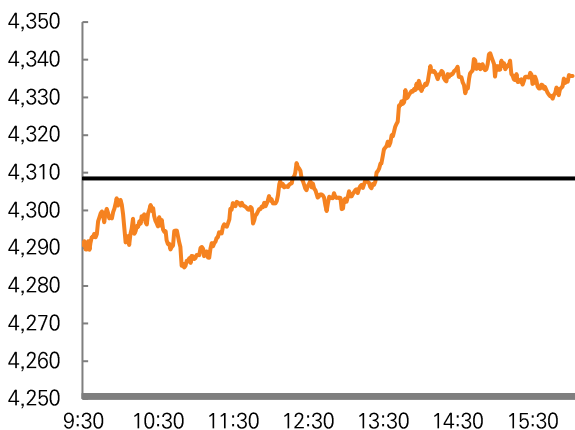
### 특징 종목: 에너지, 방산 강세

•에너지(+3.54%), 산업재(+1.61%) 등이 상승을 주도하며 S&P 500 주요 섹터 모두 상승 마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유가가 4% 넘게 상승하자 엑스모빌(+3.37%), 셰브론 (+2.83%), 코노코 필립스(+5.53%) 등 대형 에너지 회사 외에도 할리버튼(+6.75%), 마라톤오일(+6.51%), 데본에너지(+5.51%) 등 강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노스롭그루만(+11.10%), L3해리스(+9.79%), 헌팅턴잉겔스(+9.42%), 록히드마틴(+8.78%) 등 방산株도 강세를 보임.

### 한국 증시 전망: 반발 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5.2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2%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美 채권시장은 콜럼버스데이로 휴장이었지만 주요국 장기채 금리는 크게 하락. 지난 주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이는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또한 지난 주 美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임금상승률 둔화, 최근 국채금리 상승 및 금융여건 긴축 등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 특히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및 비차익 바스켓 매매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OSPI 200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 및 우량주 중심의 수급 유입 나타날 가능성 높아 보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8.73	+0.21	상해종합	3,096.92	-0.44
KOSDAQ	816.39	+1.92	홍콩항셱	17,517.40	+0.18
DOW	33,604.65	+0.59	베트남	1,137.36	+0.78
NASDAQ	13,484.24	+0.39	유로스톡스 50	4,112.57	-0.77
S&P 500	4,335.66	+0.63	영국	7,492.21	-0.03
캐나다	19,246.07	+0.57	독일	15,128.11	-0.67
일본	30,994.67	-0.26	프랑스	7,021.40	-0.5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 ① 중동 리스크 ② 연준 위원 발언

미 증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무력 충돌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하락 출발. 그러나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상승 전환. 한편 국제유가는 4% 넘게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10% 넘게 급등. 달러인덱스 장 초반 강세 출발하였으나 하락 반전

### # 하락: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지난 토요일(7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인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이 국제유가 상승을 부추기며 이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며 장 초반 증시가 약세를 보임. 그러나 시장은 과거 학습효과 영향으로 이번 분쟁이 추가 확산되기 보다는 양자간 분쟁으로 국한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공격에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징후나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일축하였고,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휴전 논의에 열려있다고 밝혀 이번 분쟁의 추가 확산이 제한적일 가능성 높여. 다만 이번 분쟁이 그 동안 간헐적으로 있었던 무장 충돌과 달리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었던 ‘옴키푸르 전쟁’ 이후 50여년 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개과정에 있어 ‘변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 이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전개 과정에 주목할 필요 있음.

### # 상승: 완화적 연준 위원 발언

장 초반,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인덱스는 연준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영향으로 강세 폭을 축소하며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되었음. 오전 발언에 나선 로리 K.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높은 장기 금리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면서 높은 장기 금리가 경제를 냉각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또한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최근 몇 달 동안 상당히 긴축된 금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전망. 오후에는 이번에 부의장을 인선 된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 그는 “노동시장의 균형이 개선됨에 따라 핵심 PCE 가격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밝혀. 이는 지난 주 발표된 9월 고용보고서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나타냈지만 노동 수요가 냉각되고 공급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완화된 임금상승률에서 확인하였기 때문. 다만 그는 금리인상의 누적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점을 주목하며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

이외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장기중립금리’의 상황과 관련한 연준 위원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음. 지난 8월 말 열린 잭슨홀 컨퍼런스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가 ‘(실질)중립금리’의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당시 전무했던 관련 발언들이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오고 있음. 특히 시장이 기대한 것과 같이 중립금리 상황에 동의하는 발언들이 집중되며, 추가 긴축 정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에너지, 방산 강세 vs. 항공 약세

에너지(+3.54%), 산업재(+1.61%) 등이 상승을 주도하며 S&P 500 주요 섹터 모두 상승 마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유가가 4% 넘게 상승하자 엑슨모빌(+3.37%), 셰브론 (+2.83%), 코노코필립스(+5.53%) 등 대형 에너지 회사 외에도 할리버튼(+6.75%), 마라톤오일(+6.51%), 데본에너지(+5.51%) 등 강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노스롭그루만(+11.10%), L3해리스(+9.79%), 헌팅턴잉겔스(+9.42%), 록히드마틴(+8.78%) 등 방산株도 강세를 보임.

반면 국제유가 상승과 이스라엘행 항공편 취소 여파로 유나이티드항공(-4.88%), 델타항공(-4.65%), 아메리칸항공(-4.08%) 등 주요 항공사 주가는 4% 넘게 하락. 또한 테슬라(-0.33%)는 중국승용차협회가 발표한 9월 자동차판매량 데이터에 따르면 모델3와 모델Y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12% 줄어 전체 판매량이 전년대비 10.9% 감소했다는 소식에 약세. 샤오핑(-10.30%)은 중동 주요 판매처인 이스라엘의 분쟁 소식에 약세를 보였고 니오(-4.36%)는 수익성 악화 우려에 하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유가 · 천연가스 급등

지난 주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4% 넘게 급등.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물가 ·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며 달러 인덱스가 107선 부근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무력 충돌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 발언 영향으로 106선 초반까지 하락. 하지만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14.97%)와 영국 NBP(+15.66%)는 급등하였는데, 셰브론이 이스라엘에 운영 중인 2개의 가스 전 중 하나인 타마르(Tamar) 해상 플랫폼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내린 예방적 차원의 결정. 반면 지난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국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전일대비 1.6% 넘게 상승하며 온스 당 1875 달러를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주요국 국채금리 진정 속 반발 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MSCI 신흥 지수 ETF는 0.4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5.28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6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2%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美 채권시장은 콜롬버스데이로 휴장이었지만 주요국 장기채 금리는 크게 하락. 지난 주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 이는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또한 지난 주 美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음에도 임금상승률 둔화, 최근 국채금리 상승 및 금융여건 긴축 등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 특히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및 비차익 바스켓 매매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OSPI 200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 및 우량주 중심의 수급 유입 나타날 가능성 높아 보임.



## 美 국채 휴장 속 주요국 금리 하락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4.15	대형 가치주 ETF (IVE)	+0.61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80
소매업체 ETF (XLY)	+0.11	소형 가치주 ETF (IWN)	+0.77
온라인소매 ETF (EBIZ)	-0.28	대형 성장주 ETF (VUG)	+0.45
미국 인프라 ETF (PAVE)	+0.46	중형 성장주 ETF (IWP)	+0.70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3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3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94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82	미국 국채 ETF (IEF)	+1.2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42	하이일드 ETF (JNK)	+0.74
바이오섹터 ETF (IBB)	-0.36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53	물가연동채 ETF (TIP)	+0.99
반도체 ETF (SMH)	-0.2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24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80.01	+3.54	-0.14	-2.99
산업재	866.19	+1.61	+1.94	-2.76
부동산	213.27	+1.30	+1.52	-6.97
유틸리티	293.44	+1.01	+2.93	-7.96
커뮤니케이션	231.17	+0.95	+2.53	+1.22
IT	3,003.98	+0.43	+2.03	-1.67
헬스케어	1,520.70	+0.36	+1.41	-0.96
경기소비재	1,262.98	+0.18	-0.36	-5.07
소재	491.61	+0.15	+0.72	-4.22
필수소비재	704.98	+0.07	-2.45	-6.45
금융	548.73	-0.11	+0.22	-3.5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6.38	+4.23	-2.85	Dollar Index	106.062	+0.02	-0.79
브렌트유	88.15	+4.11	-2.92	EUR/USD	1.0565	-0.20	+0.84
천연가스	3.38	+1.35	+19.12	USD/JPY	148.53	-0.53	-0.89
금	1,864.30	+1.63	+1.52	GBP/USD	1.2234	-0.02	+1.22
은	21.92	+1.37	+2.80	USD/CHF	0.9067	-0.34	-1.26
알루미늄	2,241.50	+0.09	-3.43	AUD/USD	0.6409	+0.36	+0.72
전기동	8,104.00	+0.72	+0.63	USD/CAD	1.3589	-0.53	-0.64
아연	2,513.00	+0.16	-3.36	USD/RUB	99.8289	-1.06	+0.55
옥수수	488.25	-0.76	-0.10	USD/BRL	5.1327	-0.26	+1.39
밀	572.75	+0.66	+1.28	USD/CNH	7.2913	-0.25	-0.43
대두	1,264.25	-0.18	-1.04	USD/KRW	1,349.90		
커피	146.05	0.00	-2.05	USD/KRW NDF1M	1,345.28	+0.20	-0.7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01	0.00	+12.24	스페인	3.925	-8.20	-7.10
한국	4.244	-9.10	+23.20	포르투갈	3.569	-8.40	-10.00
일본	0.805	0.00	+2.80	그리스	4.308	-10.10	-9.60
독일	2.772	-11.20	-15.00	이탈리아	4.836	-7.60	+3.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